



▲ (주)나람사료 음성공장 전경

업계 후발주자로서 급부상



▲ 김용남 대표이사

2004년 4월에 설립한 (주)나람은 후발업체로서 기존 사료업계의 무한경쟁에 도전장을 내고 무서운 새내기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료산업의 수요와 공급만의 원칙에서 접근하면 기득권 보호만을 유지하게 되고 기존의 틀에만 머물게 되는 정체성의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료산업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사양 산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료산업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설과 차별성을 가지고 지역적인 전문화 공장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청년 실업자가 많다고 하여 새로운 아기의 탄생을 막는다면 우리나라



▲ 나람의 철통방역은 업계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



▲ 날이갈수록 주문량이 쇄도하고 있어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요즘의 고곡가시대, 고유가시대, 고환율시대에서의 전문성과 차별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저는 오랫동안 사료업계에 몸담아 오면서 축적된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고객과 상생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사료회사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으며, 나람은 그 꿈을 실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김용남 대표이사는 후발주자로서의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또 김용남 사장은 (주)나람을 설립한 동기에 대한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농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우린 이제 농촌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사료업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차별화 신규 공장들이 탄생되지 상당히 오랜만에 나람사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료산업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국내 사료설비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새로운 사료공장이 설립되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 기존 사료회사들도 더욱 생산성 제고와 원가 경쟁력을 위해 경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료산업이 발전되고 국제 수입개방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제고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말한다.

(주)나람의 내일은 그 어느 경쟁사 보다 밝다. 그 이유는 극심한 고곡가, 고유가, 고환율의 3고 시대에서도 나람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임직원 모두 열정과 애사심, 주인정신으로 무장하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으며, 그 결과 3년여의 짧은 영업실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60% 이상의 매출 신장과 월 1만톤 판매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친 안전시대에 국민건강 식품을 제공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창업 초기부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친환경 무

항생제를 개발하였으며, 무항생제 사료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기술특허 취득과 함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산학연구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나람사료는 상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람은 나와 다른 사람의 준말로써 순수한 우리말이며, 내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양축가와 사료회사, 종업원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 정신이며 이것이 나람의 경영이념이다.

경영이념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주)나람은 우리나라 양돈산업을 대표하는 다비육종, 진왕종축(마글론), 금오양돈, 돈마루 등의 핵심 고객들을 주주로 영입하였으며, ‘품질은 생명이다’라는 경영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카길코리아와 기술제휴를 체결하여 기술



▲ 원료를 저장 사이로에 담고 있는 모습.



▲ 연구진의 모습에서 한치의 오차도 엿보이지 않는다.

제고를 통한 시너지 증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수익증대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것이 고곡가 시대에 나람사료와 농가가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사료 판매원가 요소중에 원재료비를 제외하고 가장 큰 요소인 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안정적인 판매 구조를 기본으로 한 원가 경쟁력제고를 통하여 최고의 품질을 최저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를 바탕으로 하여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나람은 2006년 11월달에 일찌감치 HACCP인증을 받고 친환경 사료를 끝까지 고수하여 국내에서 인정받는 토박이로 자리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해외사료시장에는 눈돌릴 겨를이 없다고 김 사장은 잘라 말한다.

또 나람은 지난 2007년 12월 14일 생산성 향상에 가장 큰 문제인 PRRS와 주로 장염을 일으키는 살모넬라와 복합감염을 일으키는 ‘썬코바이러스 관련 질병과 방제’라는 주제



▲ 자리를 많이 차지했던 과거의 중앙제어실에서 최신 식 첨단장비로 탈바꿈하여 공간 축소는 물론 정확도를 한층 높였다.

로 세미나를 실시하여 전국 각 농장 사장들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나람은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제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

한편 충청북도는 친환경 동물사료를 생산하는 (주)나람에 지난해 7월 (주)메디톡스(15억)와 (주)에이젠(10억)의 투자에 이어 세 번째로 ‘바이오토피아펀드’자금 1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 첨단장비로 가득차 있는 연구실 모습.

이번에 투자기로 한 (주)나람은 충북 음성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립때부터 친환경 무항생제 사료 생산업체로 항병력을 강화시킨 ‘나람바이오텍 사료’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또 배합사료의 생산을 통해 우수한 축산물 생산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한다는 사명아래, 균형잡힌 영양과 위생 그리고 친환경적인 사료생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번 투자로 올해 3개 업체에 투자하게 되는 ‘바이오토피아 펀드’는 2006년 2월 중소기업청 등록 후 운영되고 있는 펀드조합으로 2013년까지 7년동안 존속되며 성장 가능성이 크고 우수한 기술력을 겸비한 BT·IT업체 등에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채권 등의 형태로 투자되고 있으며, 특히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60%이상의 투자를 목표로 선정·지원하고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설립 당시 우려만 기대반이었던 ‘바이오토피아 펀드’가 우수 BT·IT업체 투자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려 현재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4개 업체 정도 더 투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일천한 연륜이지만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농가의 이익증대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주)나람의 탄탄대로를 기대해 본다.<吉> 